



공정거래위원회

## 보도참고자료

2020년 5월 25일(월) 배포

2020년 5월 25일(월) 10:00부터

보도 가능

힘내라 대한민국

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

담당과장: 이유태 (044-200-4484)

담당: 정신기 서기관(044-200-4493)

### **‘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지침 마련한다’**

#### **-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을 위한 태스크포스(TF) 구축 -**

-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(Task Force, 이하 TF)을 구축했다.
  - 제1차(키오프) 회의(5월 22일 16:00~17:30, 한국공정거래조정원)에서는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, 플랫폼 분야의 시장 확정, 시장 지배력,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.
- 공정위는 올해 TF운영 뿐 아니라 관련 심포지엄 개최, 연구 용역 등도 함께 추진한 후,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‘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’을 제정할 계획이다.
  - 심사 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,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## 1

### 추진 배경

-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\*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.

\*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고(113.7조 원), 2019년 134.5조 원으로 증가(18.3% ↑)함.

-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시장(Two-Sided Market)\*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 시장(One-Sided Market)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 남용·불공정 심사 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.

\* 양면 시장: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다른 두 부류 고객 그룹(예. 음식점과 주문자)을 연결시켜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주는 시장

\* (예) 현 ‘시지 남용 심사 기준’은 시장 획정의 기준으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,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 시장의 한쪽인 소비자들에게 ‘무료’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시장 획정이 어려움.

- 또한,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우대(Self-Preferencing), 멀티 호밍(Multi-Homing) 차단, 최혜국 대우(Most Favoured Nation)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 전략을 구사하면서, 현 심사 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.

- 자사 우대: 플랫폼 사업자가 상·하방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(Dual Role)하면서,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행위
- 멀티 호밍 차단: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하는 것을 막는 행위
- 최혜국 대우 요구: 다른 판매 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

- 이에 따라,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 신속성 ·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.

- 이를 위해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‘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TF’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.

## 2

## TF 구성·운영 계획 및 논의 과제

- (구성)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·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총 6명의 외부 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·과장이 참여한다.
  - 한국경쟁법학회,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,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, 법조 실무자(변호사)와 KDI 연구위원을 포함했다.
- (운영 계획) 향후 7개월간(2020년 5월~11월)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.
  - 또한,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며, 관련 연구 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.
- (논의 과제) TF 논의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방법, 시장 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, 자사 우대·멀티 호밍 차단·최혜국 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선정했다.

## &lt; 외부 위원 구성 &gt;

	성명	현 직
1	이 황 (민간 공동 위원장)	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
2	권남훈	전국대 경제학 교수
3	서 정	법무법인 한누리 공동 대표변호사
4	심재한	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5	양용현	KDI 시장정책연구부장
6	한종희	연세대 경제학 교수

- 공정위는 올해 TF운영, 심포지엄 개최, 연구 용역 등 심사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,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‘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’을 제정할 계획이다.
  - 관련 첫번째 심포지엄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19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.
- 심사 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, 법 집행의 시장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  -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,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